

<청소년의 제언~동북 아시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엄 2006 참가자의 제언~>

★ 우선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활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!

- 야생조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강과 바다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.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.
우선 쓰레기 줍기를 계속하고, 식수나 꽃을 가득 심는 등 심포지엄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자연과 연관성을 가지고 싶다.
- 우리들은 정치가도 아니고 대기업 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, 자기 주변의 환경보전 활동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.
각자가 주변의 작은일부터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

★ 학교나 지역등 가까운 곳에서 행해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
- 나는 마을의 미화 활동에 참가해서 여러 종류의 모종을 심거나 화단을 만들고 있다.
- 극동거북 연구에 참가했다.올해는 9 마리의 거북을 키워 자연에 되돌려 보냈다.많은 참가자들이 거북의 수가 줄어들고 분포지역도 좁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.
- 소나무가 잘려나가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에코클럽에서 식수 활동을 하고 있다.식수 활동을 통해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.여러분도 한사람이 한그루를 심으면 녹림이 늘어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!
- 학교 주변에 자작나무 숲을 만들 계획을 작성했다.그 숲에는 레크레이션 공간과 작은 연못을 만들어 연못에 연꽃을 기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.
- 2005 년에 「자연에 감사한다」 라는 미화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하천 정화와 쓰레기 줍기등의 마을 환경 미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.그 외에도 300 그루의 소나무,61 그루의 자작나무의 모종을 심었다.
또 작년에는 극동개구리의 알을 모아 물이 있는 하천에 이동시키는 활동에 참가했다.

★ 지금 각자가 행하고 있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!

- 연꽃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.작년에는 세 곳의 호수에 연꽃 모종을 심어 두곳에 꽃이 피었다.장래에는 연꽃 수를 늘려서 연꽃지방으로 불리기를 바라고 있다.
- 전멸위기에 있는 약초를 키워,전멸을 방지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.또 자신의 학교 숲에 약초 모종을 심는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.이 일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약초의 종자가 부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.

★ 활동의 테두리를 더욱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!

- 우리들 에코클럽에서는 환경보전 사업에 참가하고,또 환경미화 활동에도 참가하고 있다.
참가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될 수 있으면 많은사람이 참가하기를 부탁하고 있다.
- 우리들은 환경펀드를 설립해서 시의 환경미화에 힘을 쏟고 있다.또 시민과 학교의 계몽 활동과 앙케이트 조사도 실시하고 있어 사업 참가자는 매회 증가하고 있다.